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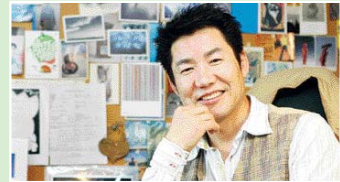
16(土)	17(日)
흐리고 비 14/18℃	흐리고 비 15/26℃

News

-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②
- 정광학원 강력 제재 ③
- 주말 프로축구 전망 ⑭

Entertainment

- 뮤지컬 무대 서는 박상원 ⑦



- 역사 인물들 '영상 부활' ⑩

Wellbeing

- 여름철 침구 준비 관리 ⑤



Books

- 정유정 내 심장을 쫓아 ⑧
- 中 여행가 6인 이야기 ⑨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식을 나흘 앞둔 지난 14일 추모객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29년 전 민주·인권 수호를 위해 몸을 던진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하지만 5월 단체들은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 등 각종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송고한 희생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월, 광주가 부끄럽다”

5·18 29돌 앞둔 민주·인권 성지 진흙탕 싸움터로

광주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5·18 민중항쟁 29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광주는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를 놓고 돌로 쪼개진 채 신음하고 있다. 80년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옛 도청은 ‘진흙탕’ 싸움터가 됐다. 29년 전 대동단결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해타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광주 민중항쟁은 한 세대가 교체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의 민주화 역사에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서슬’ 퍼린 군부독재에 항거한 ‘광주 정신’은 전국화와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광주 정신’은 아시아 개도국에 있어선 ‘자유’와 ‘평화’, ‘인권’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주는 이미 네팔과 태국, 미얀마, 필리핀 등에서 아시아 민주화의 기념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선 ‘광주인권상’ 수상자와 ‘광주 아시아인권학교’ 수료자 등을 통해 ‘광주 정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는 29주년을 맞아 추진한 본보의 현지 취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네팔에선 마다브 귀담(30)씨와 두르가 슈

(여·43)씨 등이 국제인권과정과 ‘광주아시아 인권학교’를 거쳐 ‘네팔 인권위원회’와 여성 인권단체인 ‘FEDO’ 등에서 활동하며 ‘광주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

미얀마에선 2007년 ‘아시아인권학교’ 수료한 안나 말린독(여·27)씨가 민주·인권단체인 ‘PPDD’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이 단체가 운영 중인 ‘라이트 스쿨(Light school)’은 ‘5월 항쟁’을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또 태국에선 핀파카 남송(여·32)씨가 민주·인권단체인 ‘프라차타이(Prachatai)’에서 활동하며 자국의 민주화에 ‘광주’를 접목시키는 등 5월 광주의 정신이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광주에선 ‘5월 정신’의 송고함을 찾아볼 수 없다. 29주기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5월 단체들은 시종일관 ‘타격 태격’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불협화음’은 시민들의 5·18 추모 열기마저 사그라지게 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옛 도청별관 철거 여부를 둘러싼 5월 단체간 갈등은 날뜨고려울 지경이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10일 유족회와 부상자회가 농성 중인 도청별관 앞으로 불려가 ‘농성

장 철거’를 요구,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심지어 15일엔 5·18 기념재단이 일부 5월 단체 회원들을 피하기 위해 회의장소까지 옮겨가며 새 이사장에 윤광장 전 이사장을 재선출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해 또 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5월 단체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공법단체화’ 등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29주년 기념식은 물론, 30주년을 맞는 내년 행사의 파행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5월 단체들이 ‘광주’를 인질로 삼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 등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찮다. 이같은 분열 상황에 대해 “5월 단체 내부의 문제”라며 뒷집만 지고 있어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수열 조선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현재 광주의 문제는 5월 단체들의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됐다”며 “5월 단체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5·18을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호·이종형기자 choice@kwangju.co.kr

5·18 추모 열기 고조

내일 전야제 ... 5·18 묘지 참배 발길 줄이어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제2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날 기념식은 3부 요인 등 정부 주요인사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5·18 관련 단체 회원·학생·일반 국민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화·분향·경과보고·기념공연·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5·18 기념문화관에서는 ‘2009 광주 인권상’ 시상식이 개최되고,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5·18 시민 참여 한마당 해방광주’행사가 열린다.

기념식에 앞서 17일 오전 옛 전남도청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주관으로 ‘5·18

민주화 운동 제 29주년 기념 추모제’가 5월 단체 회원들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추모제는 오전 10시부터 추모사 낭독, 추모공연, 주먹밥 나누기 등 순으로 진행된다.

또 17일 오전 10시부터 시·도민 대동 한마당이 금남로에서 열리고, 오후 5시부터 ‘소년, 그리고 5월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전야제가 개최된다.

한편 15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주요 당직자,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6천여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개성공단 사업 존폐 기로

北 “계약 무효” 일방 선언

북한이 15일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의 무효를 일방선언한 데 대해 정부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개성공단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오는 18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의하고 이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해 2004년 3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상징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이 최대 위기에 직

면하게 됐다. 북한의 개성공단 관할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낮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춘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의 일방선언에 대해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민주 새 원내대표

이강래 의원 선출

민주당의 18대 국회 2기 원내대표에 비주류인 전북 출신 3선의 이강래 의원(사진)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재적의원 84명 가운데 해외출장 등을 제외한 75명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46표를 획득,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김부겸 후보는 28표를 얻는데 그쳤다. 기권 1표였다.

앞서 이 의원은 77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35표를 획득, 1위를 차지했으나 득표가 재적 과반(43표)에 못미쳐, 22표를 얻어 2위를 차지한 김부겸 후보와 결선투표를 치렀다. 경선에 뒤늦게 참여했던 박지원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쳤지만 20표를 얻는 선전을 펼쳤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엔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람”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걸어온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귀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람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o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작용, 일산화수소기 제거, 항산화
- 피부 케어,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명화, 야맹증
- 햇빛 피부를 등에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각기시 다중 증상의 완화
- 허벅지 근육, 수축저인 수족냉증

아연의 보급

광고심의필 : 1005-0430